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조미경, 김미영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Mi-Kyoung Cho(ciamkcho@eulji.ac.kr), Mi Young Kim(kimmy@eulji.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할 때 대상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핵심역량, 스트레스와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검사, 교사-학생관계척도,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차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학습동기 측정표, 학습만족도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에 위치한 E대학교 간호대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학습만족도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r = .21, p = .018$), 교수-학생 상호작용($r = .39, p < .001$), 핵심역량($r = .21, p = .014$), 학습동기($r = .75, p < .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습동기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r = .24, p = .005$), 교수-학생 상호작용($r = .38, p < .001$), 핵심역량($r = .21, p = .018$)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었으며, 이 2개의 변수로 구축된 회귀모형의 학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59.7%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하겠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학습동기 | 교수학생 상호작용 | 학습만족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nursing students to verify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eacher-student interaction, educational performance, stress and learner motivation on learner satisfaction.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second and third year nursing students at E university located in S city.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ne 15, 2016 to June 24, 2016, and questionnaire comprised items to measure general characteristics, learner motivation, teacher-student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educational performance, and learner satisfaction. A total of 132 students were included for the final analysis. Learner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r = .21, p = .018$), teacher-student interaction ($r = .39, p < .001$), educational performance ($r = .21, p = .014$), and learner motivation ($r = .75, p < .001$). In addition, learner motiv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r = .24, p = .005$), teacher-student interaction ($r = .38, p < .001$), and educational performance ($r = .21, p = .018$). Finally,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were found to explain 59.7% of the variance of learner satisfaction. Our findings suggest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that boost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which are required to improve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education.

■ **keyword** : | Learner Motivation | Teacher-student Interaction | Learner Satisfaction | Nursing Student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이론 교육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목표를 수립하고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각 영역의 성과를 측정하는 추세이다. 간호학 분야는 교육 내용이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식전수 중심의 강의식 수업방법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학습법이 도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닝 학습(e-learning),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등이 있으며[1] 이러한 새로운 학습법의 도입에 대해 그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일부 몇몇 교과목에서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한 경우 다양한 방식의 학습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습법에 따라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요소가 학습만족도이다.

전통적인 학습법과 새로운 학습법에 있어 만족도를 비교하였을 때 전통적 교육에 비해 새로운 교육 방식이 만족스럽다는 보고도 있으나[2-4],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 또한 존재하여[5] 학습만족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습만족도란 학습자가 학습에서 목적인 바를 달성하였거나,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태임으로[6], 학습성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법에 기반한 요인만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습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요소가 제한되거나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만족도와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 학습을 적용하였을 때 학습만족도는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태도 및 학습동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재동기, 학습전략[8]이 학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기 제시된 요인 외에도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있다[9].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기존의 일반적인 교수학습 대신에 학습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습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요소이다. 또한,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고 조언이나 도움을 받거나 학습자의 사고,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 참여를 촉진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있다[10]. 이 외에도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핵심역량인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응능력, 전문분야 간의 사소통과 협력능력을 파악한 연구[11]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특성 요소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포함하였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인지역량, 감성역량, 사회문화역량으로 나뉘며, 생애 단계의 시기의 상대성,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에게 특히 요구되는 생애역량이다[12]. 또한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애문제와 같은 당면과제로부터 겪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13]을 고려한 연구와 학업성취를 높이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학습동기[14]를 관련요인으로 포함한 연구들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하기 전에 전통적인 학습법에 대한 학습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학습동기를 조사하여 이러한 요인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할 때 대상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할 때 대상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학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활 스트레스,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알아본다.

다섯째, 대상자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S시에 위치한 일개 간호대학의 2, 3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15]에 의거 양측검정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5, 회귀분석에서의 중간효과크기인 .15, 임의 예측변수 8개(나이, 성별, 학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활 스트레스, 학습동기)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의 수가 120명이었다. 탈락을 20%를 고려하여 계산된 표본수는 150명으로, 2학년 75부, 3학년 75부, 총 15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140부로 6.7% 탈락률을 보였으며, 불완전한 설문 작성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8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132부의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활 스

트레스, 학습동기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이다.

3. 연구 도구

3.1 학습만족도

본 연구에서 학습만족도는 Stein[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정재삼과 임규연[17]이 학습만족도 측정으로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만든 설문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일반만족도 4문항, 학습관련 만족도 6문항의 2개 하위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재삼과 임규연[17]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6이었다.

3.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Guglielmino [18]가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검사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검사(SDLRS :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32개 문항으로 개발한 한국형 SDLRS[19]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의 6개의 하위영역,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김지자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7이었다.

3.3 교수-학생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는 Fisher [20]가 제작한 교사-학생관계척도(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를 수정·보완한 한송이[2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과 신뢰감의 2개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좋음을 의미한다.

다. 한송이[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신뢰감 .915, 친밀감 .92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감 .886, 친밀감 .819이었다.

3.4 대학생 핵심역량

본 연구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22]를 대학생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김은희[12]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역량, 감성역량, 사회문화역량의 3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고,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핵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김은희[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인지역량 .80, 감성역량 .72, 사회문화역량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역량 .792, 감성역량 .736, 사회문화역량 .732이었다.

3.5 대학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지수 등[23]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대학차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이 도구는 개인내 범주, 개인간 범주, 학업범주, 환경범주의 4가지 하위영역,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한다'의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939였고, 본 연구에서는 .935이었다.

3.6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Keller[24]가 개발한 학습동기 측정표를 토대로 유병민 등[25]이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4개 하위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병민 등[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905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설문지 배부 전에 2, 3학년 학생대표에게 연락하여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연구참여기간, 연구참여 중 중도탈락,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가 자유의지에 의해 연구참여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안내하였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학생들이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와 연구 중 중도탈락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대상자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은 최소화하였으며, 무기명으로 설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연구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 자료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150부였고, 140부가 회수되었으며,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설문지 8부는 제외하고 총 132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로 산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만족도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활 스트레스, 학습동기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method)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및 학습관련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은 22.23±2.16세로, 22세미만이 98명(74.2%)으로 22세 이상보다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119명(90.2%)이었으며, 학년에 있어서는 2학년이 68명(51.5%)로 3학년보다 조금 더 많았다. 간호대학생의 학습관련 특성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평균 3.47±0.31(범위:2.8-4.3)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학생들이 62명(47.0%)이었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평균 3.96±0.41(범위:3.0-4.8)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학생들이 60명(45.5%)이었다. 대학생 핵심역량은 평균 3.83±0.32(범위:3.2-4.8)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학생이 54명(40.9%)이었고, 대학생할 스트레스는 평균 1.81±0.58(범위:0.5-3.5)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학생이 56명(42.4%)이었으며, 학습동기는 평균 3.53±0.40(범위:2.0-4.9)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학생이 63명(47.7%)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2)

항목	N (%)	문항수	Mean±SD	범위
연령 (year)	< 22	98 (74.2)	22.23±2.16	
	≥22	34 (25.8)		
성별	남	13 (9.8)		
	여	119 (90.2)		
학년	2	68 (51.5)		
	3	64 (48.5)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47	70 (53.0)	3.47±0.31	2.8-4.3
	≥3.47	62 (47.0)		
교수-학생 상호작용	<3.96	72 (54.5)	3.96±0.41	3.0-4.8
	≥3.96	60 (45.5)		
대학생 핵심역량	<3.83	78 (59.1)	3.83±0.32	3.2-4.8
	≥3.83	54 (40.9)		
대학생활 스트레스	<1.81	76 (57.6)	1.81±0.58	0.5-3.5
	≥1.81	56 (42.4)		
학습동기	<3.53	69 (52.3)	3.53±0.40	2.0-4.9
	≥3.53	63 (47.7)		

2.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3±0.53점(범위:2.3-5.0점)이었고, 하위영역인 일반만족도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3.47±0.62(범위:2.0-5.0점)이었고, 학습관련 만족도 영역의 평균만족도는 3.57±0.52(범위:2.5-5.0점)이었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 (N=132)

변수	문항수	Mean±SD	범위
학습만족도	10	3.53±0.53	2.3-5.0
일반만족도	5	3.47±0.62	2.0-5.0
학습관련만족도	5	3.57±0.52	2.5-5.0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및 학습관련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학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학습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2학년이 3학년보다 학습만족도가 높았고($t = 2.25, p = .026$), 교수-학생 상호작용($t = -4.26, p < .001$), 대학생 핵심역량($t = -1.99, p = .049$)과 학습동기($t = -7.44, p < .001$)는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학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 특성변수인 성별과 연령,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대학생할 스트레스의 평균값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일반적 및 학습관련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 (N=132)

변수	학습만족도		
	Mean±SD	t (p)	
연령(year)	< 22	3.53±0.52	0.01 (.998)
	≥ 22	3.53±0.54	
성별	남	3.68±0.62	-1.04 (.298)
	여	3.52±0.51	
학년	2	3.63±0.57	2.25 (.026)
	3	3.43±0.45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47	3.48±0.51	-1.33 (.187)
	≥3.47	3.60±0.54	
교수-학생 상호작용	<3.96	3.37±0.46	-4.26 (<.001)
	≥3.96	3.73±0.54	
대학생 핵심역량	<3.83	3.46±0.47	-1.99 (.049)
	≥3.83	3.64±0.58	
대학생활 스트레스	<1.81	3.61±0.53	1.91 (.059)
	≥1.81	3.43±0.50	
학습동기	<3.53	3.46±0.47	-7.44 (<.001)
	≥3.53	3.64±0.58	

4.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활 스트레스, 학습동기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r=.21, p=.018$), 대학생 핵심역량($r=.21, p=.014$)과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r=-.22, p=.010$)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교수-학생 상호작용($r=.39, p<.001$)과는 다소 강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학습동기($r=.75, p<.001$)와는 매우 강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4].

표 4. 학습만족도와 학습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32)

변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학습만족도
			핵심역량	활 스트레 스	동기	
r (p)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1					
교수-학생 상호작용	.30 (.001)	1				
대학생 핵심역량	.69 (.001)	.40 (.001)	1			
대학생활 스트레스	-.05 (.577)	-.18 (.042)	-.09 (.315)	1		
학습동기	.24 (.005)	.38 (.001)	.21 (.018)	-.28 (.001)	1	
학습만족도	.21 (.018)	.39 (.001)	.21 (.014)	-.22 (.010)	.75 (.001)	1

5.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중에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났던 학년만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학습관련 특성 중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핵심역량, 학습동기는 연속 변수로 총 5개 요인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학습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 시 단계 변수 선택(stepwise) 방법을 이용하였고 유의확률 .05를 기준으로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유의확률 .10을 기준으로 변수를 제거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 대한 회귀 모형은 공차

(tolerance)가 0.834~0.96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32~1.120으로 10이하를 만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3.16, p<.001$).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는 학습동기, 학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이 3개 변수로 구축된 회귀모형의 학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59.7%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는 학습동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만족도의 56.2%를 설명하였다[표 5].

표 5.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32)

변수	β	SE	t	p	Partial R-Square	Model R-Square
(Constant)	.327		-0.75	.452		
학습동기	.68	.080	11.09	<.001	.562	.562
학년						
(ref.=2nd)						
3rd	-.15	.060	-2.65	.009	.017	.579
교수-학생 상호작용	.15	.078	2.39	.018	.018	.597
F* (p)				63.16	<.001	
Tolerance				.834-.969		
VIF				1.032-1.120		

IV.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적 학습법을 시행하고 있는 교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만족도를 알아보고,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학습관련 특성 중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높은 경우, 대학생 핵심역량이 높은 경우, 학습동기가 높은 경우가 학습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 작용이 학습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26]와 일치하는 결과였고, 대학생 핵심역량의 경우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습법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27]와 일맥상통한 결과였다. 또한 학습동기가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동기가 높으면 학습을 쉽게 수행하며 주의집중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결과[28]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습동기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고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학습동기였다.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은 선행연구에서 혼합학습을 적용하였을 때 활동 자체의 고유한 만족감을 위해 그 활동을 하는 내재동기화가 높은 학생이 학습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1]와 일치한 결과였다. 또한 학습자가 지향하는 학습목표에 따라서 학습전략의 선택, 학업성취 만족도 및 학습자의 태도와 수행이 달라진다고 하였듯이[29]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결국 학습만족도를 높이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학생은 처음 접하는 학습법을 경험할 때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상호작용 같이 학습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요소에 대한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30]. 따라서 학생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학습법을 적용할 때에는 도입 의도와 성취목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동기 부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과 자율성을 강조한 플립러닝의 경우 수업 전에 집에서 하는 사전활동에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31].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학생이 편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수받는 교육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주도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학습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할 때는 학습자의 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인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향후 전공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기대되는 기반이 되는 자신감, 학습습관,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과 같이[32]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학습동기 다음으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었다. 이는 주도학습을 강조할 때 교수자의 개입 없는 자유로운 활동이 오히려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교수자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선행연구[30]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학

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에서 학습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교수자의 질문, 적절한 조언이나 단서 제공 등의 피드백 제공은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6]. 이와 같이 교수는 기존의 강의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촉진자 및 조언자로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상호작용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고, 나에게 관심이 더 많고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개성과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측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에게 동시에 동일한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 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접근이 가능한 학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전혀 관련성이 없지는 않으나, 다른 변수에 비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웹 기반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보고[33]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학습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알 수 있겠다.

한편, 개성과 인지 사이의 연결고리로 인해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습법의 효과는 달라진다는 것[27]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생 핵심역량과 대학생 웹 스트레스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들의 영향정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인의 역량이나 스트레스 정도보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는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능력보다는 교수자의 역할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새로운 장비 및 기술을 동반한 교육 방식을 도입한 교육방법이 많이 있으나, 웹을 이용하였다고 반드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교육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듯이[34] 최신의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학습법이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도구 자체나 수단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어떠한 틀을 기반으로 한 학습법이던지, 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습자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E대학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습동기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었다. 그 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핵심역량,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인의 역량이나 스트레스 정도보다 학습동기와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는 교수자의 역할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할 때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통해 학생의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 2,3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추후에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한지영, “블렌디드 이러닝(Blended e-learning)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내재동기, 이러닝 학습전략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6-23, 2013.
- [2] A. J. Bennett, L. M. Arnold, and J. A. Welge, “Use of standardized patients during a psychiatry clerkship,” *Academic Psychiatry*, Vol.30, No.3, pp.185-190, 2006.
- [3] 김지숙, 김영희,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학습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203-212, 2016.
- [4] 서지혜, 정종필, 최은주,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아동간호학의 학습성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784-795, 2016.
- [5] 유문숙,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 및 효과분석 :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6] B. B. Wolman, *Dictionary of behavioral science*, Academic Press, 1989
- [7] 송영아,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과 주제중심학습(Subjective Based Learning) 간의 학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태도 및 동기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55-62, 2008.
- [8] 최선주, 권말숙, 김선희, 김현미, 정양숙, 조금이,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건강사정 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pp.97-105, 2013.
- [9] S. Bates and R. Galloway, *The inverted classroom in a large enrolment introductory physics course: a case study*,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2012.
- [10] 강민석, 임걸, “대학 이러닝 콘텐츠 기반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과 학습동기가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1014-1023, 2013.
- [11] 정명순, 권혜진,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구조모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56-265, 2015.
- [12] 김은희, *한국 대학생의 21세기 생애역량 준비도*, 이화여자대학교, 2014.

- [13] 송영숙,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삶의 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71-80, 2012.
- [14] 이옥희,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2003.
- [15]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16] J. J. Stein, *Asynchronous computer conferencing as a supplement to classroo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impact of selected learner characteristics on user satisfaction and the amount of interaction*, MI: Wayne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7.
- [17] 정재삼, 임규연,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참여도, 성취도 및 만족도 관련 요인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공학회, 제16권, 제2호, pp.107-135, 2000.
- [18] L. 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1978.
- [19] 김지자, 김경성, 유귀옥, 유길환,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방안," 평생교육학연구, 제2권, 제1호, pp.1-25, 1996.
- [20] G. L. Fisher, *Comparing writing with interviews and exams as assessments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erivative*,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1.
- [21] 한송이,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2009.
- [22] M. Kang, H. Heo, I. Jo, J. Shin, and J. Seo, "Developing an educational performance indicator for new millennium learners,"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Vol.43, No.2, pp.157-170, 2010.
- [23] 유지수, 장수정, 최은경, 박지원,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8권, 제3호, pp.410-419, 2008.
- [24] J. M. Keller, *Motivational design of instruction* (Song, S. H Trans), 1sted., Seoul: Kyoyook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1999.
- [25] 유병민, 전종철, 박혜진, "대학 수업에서 개인적 성찰과 협력적 성찰이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9권, 제4호, pp.837-859, 2013.
- [26] 조성문, 송해덕,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성찰 수준과 스캐폴딩 유형이 인지적 실재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학회, 제51권, 제3호, pp.219-242, 2013.
- [27] D. A. Cook, M. H. Gelula, D. M. Dupras, and A. Schwartz, "Instructional methods and cognitive and learning styles in web based learning: report of two randomised trials," *Medical Education*, Vol.41, No.9, pp.897-905, 2007.
- [28] 추희영,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남대학교, 2010.
- [29] 박혜정, 최명숙, "우리나라 교육에서 e-러닝의 학습효과와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 분석," 교육공학연구, 제24권, 제1호, pp.27-53, 2008.
- [30] V. Simpson and E. Richards, "Flipping the classroom to teach population health: increasing the releva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5, No.3, pp.162-167, 2015.
- [31] 한형중, *대학 역전학습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5.
- [32] 이성희, "학습동기향상프로그램이 학습부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습관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 12권, 제1호, pp.5-12, 2006.

[33] L. M. Pachnowski and J. P. Jurczyk, *Correlating self-directed learning with distance learning success*,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aster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learwater, FL, 2000.

[34] V. L. Salyers, "Teaching psychomotor skills to beginning nursing students using a web-enhanced approach: a quasi-experiment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4, No.1, 2007.

저 자 소 개

조 미 경(Mi-Kyoung Cho)

정회원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성과,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김 미 영(Mi Young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학습만족도, 간호교육